

## 20대 남녀의 의복색상 선호에 관한 연구 - 대구시내를 중심으로 -

은영자·박소희\*  
계명대학교 가정대학 의류학과

### A Study on Preference of Men and Women in Their 20s of Clothing Color - In the Taegu Areas -

Young-Ja Eun and So-Hee Park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Keimyung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IV. 결과 및 논의
I. 서론	V. 결과 및 제언
II. 이론적 배경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cast the tendency of clothing colors, to provide materials useful for making the color plan for a better costume, and suggest new information in the apparel industry.

To achieve these purpos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by suggesting vogue colors of recent apparel, along with the 20 standard colors of Muncell to 350 men and women in their 20s residing in Taegu. We analysed and compared their preferred colors in suits and T-shirts available for combination with jeans by seasons, by examining these individual factors ; age, sex, education, skin color, and body shape, and additionally classifying their interest in clothing colors, cause for color selection, degree of interest in color of clothes, color satisfaction of apparel market, and color combination of clothing. We compared these elements according to their age, sex, and edu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1. It was shown that both men and women in their 20s preferred warm colors the first colors mentioned being the most popular : Pastels, Red, Blue and Black. They disliked dark and sordid colors in the order of Mauve, Khaki and Red.

They preferred wearing Pastels and Yellow in the spring, White, Blue, and Pastels were the favorites for summer, Beige in autumn, and Black, Gray; and Beige in winter.

The repugnant colors they chose to wear were Black, Red, Mauve, Khaki in spring and summer. Mauve, Red, Yellow were favorites for autumn, and Blue · White, Yellow · Green, and Pastels in winter.

2. The preferred colors for T-shirts were Yellow, Pastels, White in spring. White and Pastels were summer favorites, Beige and Red for autumn, and Black, Red, Beige in Winter.

As for suits, the preferred colors in spring were in the order of Pastels, Beige and Yellow. The preferred colors of upper garments in summer were in the order of White and Pastels. For lower summer garments Pastels, White and Blue were favorites. In autumn, Beige was shown to be highly preferred, and in winter, the order of preferred colors was Black, Gray and Beige.

3. One of those individual factors showing the greatest difference was sex.
4. Those factors having the greatest impact on the selection of clothing color were the season and their preference color.
5. The in vogue color of men in their 20s was at a higher level than that of women. The groups that had an upper college level education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ir choices than those who were highschool graduates and technical college students and graduates.

The consideration of interest in color of clothes, holding clothes during new purchasing, body shape and skin color was higher for women than men. In buying and wearing accessories, women ten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harmony with the garment, and there was shown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highschool graduates and the groups above the level of college education.

## I. 서 론

복식은 인체위에 표현되는 예술로서 내면적 가치판단과 미의식의 심리적 발로이며 우리 생활양식의 직접적인 표현이기도 할 만큼<sup>1)</sup> 자아표현의 수단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늘날 의복에서 형태나 색채에 의한 장식적 요구가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색채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의복에서의 색채는 개인의 성격, 연령, 성별 등을 구별해 주며<sup>2)</sup>, 개인의 기호, 개성, 심미안, 심리상태, 문화적 배경 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의복을 선택하는데 있어

서도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sup>3)</sup>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많은 사물이나 현상은 색채를 하나의 속성으로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색채는 인간의 생리적, 심리적인 면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친다.<sup>4)</sup>

의복에 있어서 색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의복색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으나 연구에서 제시된 색상들이 대부분 Munsell의 기본적인 10색 또는 20색에 치중되거나 색상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실제적으로 연구가 행해지고 있는 시기의 유행색과 너무 동떨어져고 있다.

그리고, Horn과 Gurel은 25세 미만의 연령층이 어느 연령층보다 동질적이면서도 다양성을 요구할 뿐 아니라 유행에 가장 민감하다고 했다.<sup>5)</sup> 또한 일생 중 의복에 가장 흥미를 갖고 있는 시기는 10대말에서 20대초로서 목적달성과 주위의 인정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복이 주는 영향력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다<sup>6)</sup>는 연구결과가 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20대 남녀로 하고, Munsell의 표준 20색상과 최근 복식에서의 유행색을 함께 제시하여 연구대상자들의 관념적인 기호, 혐오색과 의복에서의 기호, 혐오색, 아울러 의복 선택시 색상에 대한 태도를 알아봄으로써 앞날의 색채경향을 예측하고 보다 나은 복장의 색채계획을 확립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의류산업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색채의 감정

색채에는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는 미묘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흔히 경험하는 바이며 색에서 받는 인상은 색상에 따라서 복잡 다양하나 나름대로의 고유한 감정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색의 감정은 독특한 심리적인 힘을 가져서<sup>7)</sup> 구두와 문서 서술의 방법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서를 대변하고, 감정에 밀접한 정보들을 상징화 하거나 코드화된 형태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처럼 색채의 상징적 특성은 언어와 지역 문화, 종교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sup>8)</sup> 그러므로 색채감정의 일반적 공통성이 전통에 의해 보편화 되어지면 강한 상징적인 힘을 가지게 된다.<sup>9)</sup> 상징적인 색채 적용의 대표적인 예로서 남성용 제품과 여성용 제품의 색채구분이 있을 수 있다. 부드럽고 우아한 분위기의 여성을 대표하는 제품에 Pastel톤의 밝은 색채가 주로 사용되는데 반하여, 강하고 차분한 남성의 이미지에는 어두운 청색, 갈색, 회색류가 활용된다.<sup>8)</sup> 복장에 있어서도 색채의 image는 색채 자체에 특유의 감정이 결부되므로 색채기호에 있어서 이러한 상징적 힘이 강하게 작용한다.

### 2. 색채 기호 심리

사람들이 특정한 색채에 대해 기호반응을 일으키는 심리적 요인들을 살펴보면, 우선 그 물건을 사용하고 보는데 따라 그 기호성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빨강색 구두를 신는 것은 천해 보이나 빨강색 화병을 보고 있다면 기분이 상쾌하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색의 기호에 어려움을 나타내는 一례라 하겠다.

기호는 좋으나 싫으나 하는 어느 한 쪽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정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하나의 지향·경향이 나타나는 것이다. 쉽게 예를 들면 빨강색이 기호색이라 해서 빨강색 의복만 만들어 둔다면 돋보이게 하는 색이 없으므로 빨강색도 팔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색채 기호는 연령이나 성별, 직업별, 교양 등에 의하여 쉬지 않고 변화는 계속해 간다.<sup>10)</sup> 이런 경향은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내성적인 사람들에게서 많이 엿볼 수 있다.<sup>11)</sup>

### 3. 의복의 색상효과

연령으로 볼 때, 어린이들은 검은 색이나 탁한 색들은 거의 입지 않고 옅고 자극이 적은 색이 바람직하고, 10대에는 고명도나 고채도의 색이 애용되고, 20~30대는 어느 정도 가라앉은 색이 세련된 느낌을 주며, 무채색은 공식적이며 점잖은 분위기를 준다.<sup>12)</sup>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선명한 명색조를 거의 입지 않는다. 그리고, 피부는 신체의 가장 큰 기관이며 신체 외부의 외관으로 신체의 색과 재질은 의복색과 재질을 지각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된다. 같은 피부에 같은 복색이라도 명도차가 많은 복자조직, 재질의 관계에 있어 빛의 반사각에 따른 밝기의 변화에 따라 또 배색효과와 좋고 나쁨에 따라 유색인종의 피부에 어울리게 되는 것이다. 황색인 피부에 잘 어울리는 색은 옅은 청색(Pale Blue)이나 밝은 청색(Light Blue) 계열이다.

여러 색중 노랑색이 제일 크게 보이고 녹색, 빨강, 파랑 순으로 차츰 작게 보이는데 이런 현상은 명도와도 관련이 있어 밝은 색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고 커 보이며, 어두운 색은 후퇴되고 축소되어 보인다.<sup>13)</sup> 그러므로 야윈 사람은 팽창색과 고명도의 색으로 결점을 보완할 수 있고, 뚱뚱한 사람은 스포티하고 세련된 느낌의 것을 택하되<sup>14)</sup> 수축색과 저명도의 어두운 색이 적절하고, 옅은 색 사용시 가장자리에 진한 배색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sup>15)</sup>

색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는데 옅은 명색조는 봄과 초여름의 신선함을, 선명한 정상적인 명도는 늦여름의 성숙을, 탁한 암색조는 가을과 겨울의 휴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봄의 패션은 종종 파스텔 색상이며 여름의 색들은 생동감 있고 발랄하며 행복하고 가을의 패션들은 어둡고 선명하며 풍부한 느낌의 색상을 사용한다.<sup>16)</sup> 또한 색의 선택이 개성을 표현하는데, 대개 밝은 성격의 소유자는 밝은 색의 옷을 애용하고 침울한 성격의 소유자는 어두운 색의 옷을 주로 입는다. 반대로 내성적이고 침울한 성격의 소유자도 밝은 색상의 옷을 입음으로써 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sup>17)</sup>

이처럼 의복의 색상선택은 이런 요건들을 고려하여 물리적이고도 심리적인 색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용되어야 한다. 의복에서 색의 적용범위는 다양하고 그 방법이나 종류도 무척 다양하다.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 그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어떤 형태인가에 앞서 첫인상을 좌우하는 것은 색채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복식에서의 색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어려움도 있지만 잘 사용하면 바람직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 색이다.<sup>18)</sup>

### 4. 20대의 일반적 특성과 의복행동

인간은 10대 후반에 신체적 성장이 거의 완료되며, 최상의 신체적 상태를 유지한다. 그들의 성장은 개인적 정체감의 확립, 생활의 시작, 결혼,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사실과 같은 심리·사회적 변화들을 포함한다. 20대는 특히 성인으로서의 개인의 자아를 확립하기 위한 시기가

다. 젊은 사람들은 이 시기를 인생의 출발점으로 보아 정체감 확립을 위한 관심을 주위 세계로부터 의식의 내부로 돌린다. 이 시기의 핵심적인 일은 진실된 자아에 적합한 것을 찾으면서 개인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대학, 취업, 결혼과 같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처음으로 그와 같은 중대사를 결정하게 됐다는 사실에 일종의 압박감을 느낀다.<sup>16)</sup>

이러한 청년기의 의복행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의복에 대한 관심이 커지므로 의복을 통해 의복만족감, 혹은 의복불안감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과도기에 겪는 심리적 불안감을 의복으로 해결하려 한다. 따라서 의복이 가진 많은 속성 중 사회적 인정을 가장 중요시하게 되며 유행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sup>17)</sup> 또한 Garrison은 청년기에 있어서 의복은 안정감의 상징, 자신의 표현, 동료로부터의 동일시의 수단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sup>18)</sup>

### Ⅲ. 연구방법 및 절차

#### 1. 연구문제

- ① 20대 남녀의 관념 기호, 혐오색과 계절별 착용 기호·혐오색, 의복종류(T셔츠와 정장)에 따른 계절별 선호색상에 대해 살펴본다.
- ② 관념 기호, 혐오색과 계절별 착용 기호, 혐오색, 의복종류(T셔츠와 정장)에 따른 계절별 선호색상을 연령, 성별, 교육정도, 피부색, 체형별로 나누어 비교한다.
- ③ 의복제품 선택시 색상에 대한 태도로써 의복구입시 색상선택의 원인, 의복색상에 대한 관심도, 의류시장의 색상만족도, 의복에 있어서의 색상조화로 나누어 살펴본다.

#### 2. 용어정의

- ① 관념기호색 : 관념적으로 좋아하고 즐기는 색상
- ② 관념혐오색 : 관념적으로 싫어하는 색상
- ③ 착용기호색 : 의복 착용시 좋아하고 즐기는 색상
- ④ 착용혐오색 : 의복 착용시 싫어하는 색상

####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20대 남녀를 대상으로 1996년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총 400부를 배부하여 회수된 372부 중 불완전한 응답과 기재상 결함이 있는 것을 제외한 350부가 자료처리에 사용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보면, 남자가 142명, 여자가 208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으로 볼 때 20대 초반(20~24세)은 149명, 20대 후반(25~29세)은 201명이었으며, 교육정도별로 나누어보면 고졸이 62명, 전문대가 65명, 대학재학~대학원졸이 223명이었다.

#### 4.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 조사 도구가 사용되었다.

<표 1> 설문지 문항 분류표

	분류내용	총문항	문항 출처
1	계절별 색 연상	2	문순만 <sup>19)</sup>
2	관념 기호·협오색	4	
3	착용 기호·협오색	1	
4	의복 색상에 대한 관심도	10	김소형 <sup>20)</sup> , 이금숙 <sup>21)</sup>
	전체문항수	17	

### 1) 색상관련 문항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은 표준화된 것이 없으므로 선행 연구자들의 기존 설문지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문항과, 또 연구자가 작성한 문항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의복 색상에 대한 관심도에 관한 각 문항은 5단계의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다. 조사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누었으며 그 내용을 <표 1>로써 정리하였다.

### 2) Munsell 색상표

설문에 대한 답변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Munsell색상표를 제시하였다. Munsell의 색상표에서의 20색과 3개의 무채색과 함께 최근 3년간의 의복 유행색을 직접 조사하여 가장 많이 의복에 사용되고 있는 7개의 색(peach, french beige, brown, khaki, green sky blue, mauve, ivory)을 보충해서 총 30색을 순서대로 가로 3cm×세로 1.5cm의 크기로 잘라 A4크기(가로 21cm×세로 29cm)의 회색용지에 배열하였다.

결과분석시 색상은 연구자의 임의로 12개의 group으로 나누었으며, 그 group들을 보면 red계열(빨강, 다홍, 주황), yellow계열(귤색, 노랑, 노란연두, 연두), green계열(풀색, 녹색, 초록, 청록), blue계열(바다색, 파랑, 감청, 남색), purple계열(남보라, 보라, 붉은보라, 자주, 연지), pastel계열(peach, green sky blue, ivory), beige계열(french beige, brown), 기타로 khaki와 mauve를 각각 따로 보았으며, 무채색도 각각 따로 보아 white, gray, black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 5. 자료처리

수집된 조사 설문지는 SAS를 이용하여 전산처리 하였으며, 자료의 분석은 빈도분포, 평균, 백분율, 상관관계, t-검증, ANOVA, Scheff test 등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20대 남녀의 기호색과 협오색의 분포

#### 1) 20대 남녀의 관념 기호·협오색의 분포 경향

20대 남녀의 관념기호색과 관념협오색의 분포 <표 2>를 살펴보면,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은 pastel계의 색상들로 15.7%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red계, blue계, black을 선호하였으며, 협오도가 가장 높은 것은 mauve색으로 23.4%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khaki색, red계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시기가 2월부터 3월초에 실시한 관계로 봄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pastel계에 대한 기호도가 높았으며, 이는 요즘 fashion경향과 일치되고 있다.

선행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김영철<sup>22)</sup>은 기호색이 파랑·노랑·흰색, 혐오색이 빨강·검정

<표 2> 관념 기호·협오색의 분포

	관념기호색		관념협오색	
	N(명)	%	N(명)	%
Red계	45	14.0	46	13.1
Yellow계	31	8.9	22	6.3
Green계	28	8.0	21	6.0
Blue계	43	12.3	23	6.6
Purple계	24	6.9	5	1.4
Pastel계	55	15.7	17	4.9
Beige계	29	8.3	20	5.7
Khaki	16	0.9	67	19.1
Mauve	3	4.6	82	23.4
White	25	7.1	0	0
Gray	9	2.6	32	9.1
Black	38	10.9	15	4.3
계	350	100.0	350	100.0

순으로 나타났고, 문순만<sup>23)</sup>은 기호색이 남색·보라·흰색, 협오색은 회색·빨강·자주 순이고, 이금숙<sup>24)</sup>은 기호색은 녹색·흰색·남색 순으로, 협오색은 회색·자주·빨강의 분포가 높았으며, 오은경<sup>25)</sup>은 기호색은 연한 베이지·노랑·파랑·보라색이, 협오색은 고동·진보라·살색·다홍색과 노랑·자주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빨강색에 대한 협오도가 모두 높았고 본 연구에서는 기호도도 높은 편이었는데, 이는 투쟁, 전투, 혁명, 위험 등 빨강색의 상징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White를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에 백의민족으로서 흰색을 숭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20대 남녀의 계절별 착용 기호색과 착용 협오색의 분포

### (1) 착용 기호색

3) 봄에는 역시 pastel계열이 가장 높고 다음이 yellow계로 두 계열이 전체의 65.5%를 차지했다. 노랑색은 모든 색상중에서 가장 광채가 많은 색으로서 이 색상이 가지는 고명도와 銳利性이 입체적 효과를 낳으므로 현대적 감각이 풍부한 색으로 취급되어 그 기호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sup>26)</sup>

여름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white와 blue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흰색은 밝고 고상하며 한색계통과 배색이 되면 이지적이며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주며 난색과는 활기있고 명랑한 느낌을 주는 색상이다. 파랑색은 냉기가 도는 색상으로서 청명하고 고요하며 수동적인 느낌을 준다. 일반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두루 사용되며 대체로 선호되는 색이다.

가을에는 beige계가 67.1%를 차지했으며, red계, pastel계, khaki, gray 순이었다. 최근 몇 년전부터 Fashion계에서는 자연과 지구, 환경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원색보다 natural한 중성색 계열의 의복들이 쏟아져 나왔으며 또한 이러한 중성색에 대한 선호도 높아지고, '가을'이라는 계절적 배경과 어울려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겨울에도 black이 44.9%로 거의 압도적이고, 이어서 gray, beige계가 차지하고 있다. 검정은 모든 무채색 가운데서 가장 명도가 낮은 색이므로 따라서 가장 무겁고 엄숙하며 深遠한 깊이를 느끼게 하는 색상인 반면 음산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회색은 감정적 효과가 있어서 완전히 중성을 나타내며, 흰색과 검정의 성질을 끌고루 가지고 있다.

홍선의<sup>26)</sup>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갈색 또는 무채색계열의 의복을 가장 즐겨입고, 다음으로 pastel계열의 의복을 선호하고 있다고 나타났는데 본 연구의 봄, 가을 착용기호색 분포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정삼호<sup>27)</sup>는 봄에는 명도가 높은 밝고 연한 색상을, 여름에는 흰색·남

<표 3> 착용 기호·협오색의 분포

명 (%)

	착용 기호색				착용 협오색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N (%)							
Red계	26 ( 7.4)	10 ( 2.9)	20 ( 5.7)	22 ( 6.3)	43 (12.3)	70 (20.0)	57 (16.3)	26 ( 7.4)
Yellow계	107 (30.6)	6 ( 1.7)	6 ( 1.7)	6 ( 1.7)	17 ( 4.9)	15 ( 4.3)	54 (15.4)	40 (11.4)
Green계	16 ( 4.6)	8 ( 2.3)	10 ( 2.9)	1 ( 0.3)	12 ( 3.4)	11 ( 3.1)	23 ( 7.4)	40 (11.4)
Blue계	12 ( 3.4)	70 (20.0)	6 ( 1.7)	3 ( 0.9)	21 ( 6.0)	18 ( 5.1)	47 (13.4)	59 (16.9)
Purple계	2 ( 0.6)	10 ( 2.9)	6 ( 1.7)	3 ( 0.9)	7 ( 2.0)	8 ( 2.3)	9 ( 2.6)	16 ( 4.6)
Pastel계	122 (34.9)	58 (16.6)	15 ( 4.3)	13 ( 3.7)	17 ( 4.9)	8 ( 2.3)	28 ( 8.0)	39 (11.1)
Beige계	30 ( 8.6)	5 ( 1.4)	235 (67.1)	49 (14.0)	26 ( 7.4)	30 ( 8.6)	5 ( 1.4)	7 ( 2.0)
Khaki	0 ( 0)	3 ( 0.9)	15 ( 4.3)	3 ( 0.9)	36 (10.3)	30 ( 8.6)	17 ( 4.9)	12 ( 3.4)
Mauve	4 ( 1.1)	2 ( 0.6)	14 ( 4.0)	11 ( 3.1)	39 (11.1)	53 (15.1)	58 (16.6)	36 (10.3)
White	22 ( 6.3)	171 (48.9)	2 ( 0.6)	10 ( 2.9)	2 ( 0.6)	4 ( 1.1)	20 ( 5.7)	59 (16.9)
Gray	8 ( 2.3)	4 ( 1.1)	15 ( 4.3)	72 (20.6)	35 (10.0)	20 ( 5.7)	12 ( 3.4)	9 ( 2.6)
Black	1 ( 0.3)	3 ( 0.9)	6 ( 1.7)	157 (44.9)	95 (27.1)	83 (23.7)	17 ( 4.9)	7 ( 2.0)
계	350 (100.0)	350 (100.0)	350 (100.0)	350 (100.0)	350 (100.0)	350 (100.0)	350 (100.0)	350 (100.0)

색·초록 등 무채색을, 가을에는 명도가 낮고 어둡고 짙은 색상을, 겨울에는 무채색과 어둡고 짙은 색상을 선호한다고 하였다. 조혜숙<sup>28)</sup>은 봄에는 Pink, 옅은 살색이 좋고, 여름에는 흰색을 기조로 한색계의 빨강이나 푸른색 계통이 섞인 시원한 색이 돋보인다고 했으며, 가을에는 청록색, 커피색, 짙은 황록색, 밝은 갈색 등의 색상이 좋으며, 겨울에는 검정, 회색, 초콜렛색이 대표적이라고 하였다. 이들 결과들이 본 연구결과와 거의 일치하고 있어 계절별 착용기호색의 차이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 (2) 착용 협오색

20대 남녀의 착용 협오색을 계절별로 볼 때 (표 3), 봄과 여름에는 화사하고 밝은 색을 좋아하고 어둡고 칙칙한 색은 싫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을에는 원색의 의복을 별로 좋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겨울에는 blue계와 white가 같고, 다음은 yellow계와 green계, pastel계로 나타났다.

## 3) 의복종류에 따른 계절별 선호색상

### (1) T셔츠의 색상

젊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청바지 위에 입는 T셔츠의 색상을 각 계절별로 알아보았다. 봄에는 yellow계, pastel계, white 순으로 대체로 밝고 연한 색과의 조화를 선호하였다. 여

름에는 역시 white가 50.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pastel계, blue계가 차지하였다. 가을에는 착용기호색과 비슷하게 beige계, red계, mauve 순이고, 겨울에는 역시 black, red계, beige계 순으로 나타났다.

## (2) 정장 上·下衣의 색상

각 계절별로 정장의 착용색상을 살펴보면, 봄에는 上·下衣 모두 pastel계, beige계, yellow계 순으로 밝고 연한 색상들이다. 여름에는 上衣는 white, pastel계가 65.4%나 차지하고, 다음으로 beige계, blue계 순이고, 下衣는 pastel계, white, blue계 순이다. 가을에는 beige계가 上·下衣 모두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上衣는 gray, black 순이고, 下衣는 반대로 black, gray 순이었다. 겨울에는 black이 단연 압도적으로 높고, 다음으로 gray와 beige계가 차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4계절을 통틀어 의복 배색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색은 beige계이고, 다음으로 pastel계, black, white 순이다. 이는 착용기호색에서 언급되어진 색 순위와 동일하므로 T셔츠와 정장의 의복 style이 달라도 자신이 착용하기 좋아하는 색상 위주로 착용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상의보다 하의를 짙은 색상으로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 색의 중량감을 잘 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개인적 요인에 따른 색상선호

개인적 요인, 즉 연령, 성별, 교육정도, 피부색, 체형에 따른 색상선호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연령별 색상선호

#### (1) 관념 기호·혐오색

관념기호색의 분포를 보면 20대 초반은 pastel계, red계, black 순으로 선호하였고, 20대 후반은 pastel계, red계, blue계 순으로 선호하였으며, 관념혐오색은 20대 초반·후반 모두 mauve, khaki, red계 순으로 나타났다.

이금숙<sup>2)</sup>은 청년전기(14~20세)는 관념기호색이 흰색·남색·녹색 순으로, 관념혐오색은 회색·파랑·자주 순으로 나타났고, 청년후기(21~26세)에서는 기호색이 녹색·노랑·흰색 순으로, 혐오색은 회색·빨강·자주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와 비교해 볼 때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는 조사대상과 제시된 색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착용기호색

착용기호색을 연령별로 보았을 때, 봄에는 20대 초반의 기호에서 yellow계(35.57%)와 pastel계(34.23%)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다음으로 white가 기호되고, 20대 후반은 pastel계, yellow계, beige계 순이었으며, 여름에는 white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대 초반은 blue계, pastel계 순으로, 20대 후반은 pastel계, blue계 순이었다. 가을에는 20대 모두 beige계가 60%이상을 차지하였으며, 겨울은 black, gray, beige계 순으로 나타났다.

(3) 착용협오색

착용협오색은 봄과 여름은 20대 초반·후반 모두 전체 착용협오색 <표 3>과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봄에는 20대 초반이 black, gray와 mauve, khaki, 20대 후반은 black, red계, khaki 순으로 싫어하고, 여름에는 20대 초반은 black, mauve, red계 순으로, 20대 후반은 black, red계, mauve 순으로 나타났다. 가을에는 20대 초반은 red계, mauve, yellow계 순으로 싫어하고, 20대 후반은 mauve, yellow계, red계 순으로 싫어했으며, 겨울에는 20대 초반은 blue계, mauve, white가 5.71%, 다음이 yellow계와 green계가 5.14%, pastel계가 4.86% 순이고, 20대 후반은 blue계, white가 11.14%, 다음으로 yellow계, green계, pastel계가 6.29%, red계, mauve가 4.57% 순으로 나타났다.

(4) T셔츠와 정장 색상

연령별 T셔츠의 색상 분포는 전체 T셔츠의 색상 분포와 거의 같고, 정장 上下衣의 색상 분포 역시 전체 정장 上下衣 색상 분포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색채선호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인 분포경향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0대 초반과 후반의 차이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red계는 관념기호도가 높은 반면 관념협오도도 높아서 착용색으로는 선호가 낮은 편이었다.

<표 4> 성별 관념 기호·협오색의 분포 명(%)

	관념기호색				관념협오색			
	남		여		남		여	
	N	(%)	N	(%)	N	(%)	N	(%)
Red계	12	( 8.45)	37	(17.79)	27	(19.01)	19	( 9.13)
Yellow계	11	( 7.75)	20	( 9.62)	10	( 7.04)	12	( 5.77)
Green계	13	( 9.15)	15	( 7.21)	6	( 4.23)	15	( 7.21)
Blue계	21	(14.79)	22	(10.58)	8	( 5.63)	15	( 7.21)
Purple계	9	( 6.34)	15	( 7.21)	2	( 1.41)	3	( 1.44)
Pastel계	17	(11.97)	38	(18.27)	7	( 4.93)	10	( 4.81)
Beige계	19	(13.38)	10	( 4.81)	11	( 7.75)	9	( 4.32)
Khaki	2	( 1.41)	1	( 0.48)	15	(10.56)	52	(25.00)
Mauve	4	( 2.82)	12	( 5.77)	30	(21.13)	52	(25.00)
White	11	( 7.75)	14	( 6.73)	0	( 0)	0	( 0)
Gray	5	( 3.52)	4	( 1.92)	19	(13.38)	13	( 6.25)
Black	18	(12.68)	20	( 9.62)	7	( 4.93)	8	( 3.85)
계	142	(40.57)	208	(59.43)	142	(40.57)	208	(59.43)

## 2) 성별 색상선호

### (1) 관념 기호 · 혐오색

성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표 4>에서와 같이 관념기호색에서 남자는 blue계, beige계, black 순이고, 여자는 pastel계, red계, blue계로 조금 다르게 나타났다. 관념혐오색을 보면 남자는 mauve, red계, gray 순으로, 여자는 khaki, mauve, red계, green계, blue계 순이었다.

성별선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학설로서 단색에 한정할 경우 청색은 남자들이 기호하는 색상이고 적색은 여성들이 기호하는 색상인데,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 (2) 착용기호색

성별로 나눈 착용기호색의 분포는 <표 5>에 나타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봄에는 남자들은 yellow계, pastel계, beige계 순으로 착용기호가 높고 purple계와 khaki, black은 한 명도 없으며, 여자들은 pastel계가 약 48%나 되고, yellow계가 17.71%였다. 여름에는 남녀 모두 white, blue계, pastel계 순이었고, 가을에는 beige계가 남녀 모두 단연 높았고, 겨울도 동일하게 black, gray, beige계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성별 착용기호색의 분포 명(%)

	봄		여름		가을		겨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Red계	12 (8.45)	14 ( 6.73)	2 ( 1.41)	8 ( 3.85)	12 ( 8.45)	8 ( 3.65)	8 ( 5.63)	14 ( 6.73)
Yellow계	45(31.69)	62 (29.81)	4 ( 2.82)	2 ( 0.96)	4 ( 2.82)	2 ( 0.96)	4 ( 2.82)	2 ( 0.96)
Green계	12 (8.45)	4 ( 1.92)	4 ( 2.82)	4 ( 1.92)	6 ( 4.23)	4 ( 1.92)	1 ( 0.70)	0
Blue계	10 (7.04)	2 ( 0.96)	35 (24.65)	35 (16.83)	6 ( 4.23)	0	2 ( 1.41)	1 ( 0.48)
Purple계	0	2 ( 0.96)	3 ( 2.11)	7 ( 3.37)	6 ( 4.23)	0	1 ( 0.70)	2 ( 0.96)
Pastel계	23 (16.20)	99 (47.60)	25 (17.61)	33 (15.87)	11 ( 7.75)	4 ( 1.92)	4 ( 2.82)	9 ( 4.32)
Beige계	22 (15.49)	8 ( 3.85)	2 ( 1.41)	3 ( 1.44)	75 (52.82)	160 (76.92)	17 (11.97)	32 (15.38)
Khaki	0	0	2 ( 1.41)	1 ( 0.48)	3 ( 2.11)	12 ( 5.77)	2 ( 1.41)	1 ( 0.48)
Mauve	4 (2.82)	0	1 ( 0.70)	1 ( 0.48)	8 ( 5.63)	6 ( 2.88)	8 ( 5.63)	3 ( 1.44)
White	11 (7.75)	11 ( 5.29)	61 (42.96)	110 (52.88)	1 ( 0.70)	1 ( 0.48)	7 ( 4.93)	3 ( 1.44)
Gray	3 (2.11)	5 ( 2.40)	3 ( 2.11)	1 ( 0.48)	7 ( 4.93)	8 ( 3.65)	28 (19.72)	44 (21.15)
Black	0	1 ( 0.48)	0	3 ( 1.44)	3 ( 2.11)	3 ( 2.11)	60 (42.25)	97 (46.63)
계	142 (100)	208 (100)	142 (100)	208 (100)	142 (100)	208 (100)	142 (100)	208 (100)

(3) 착용협오색

<표 6>을 보면 남녀 모두 봄과 여름에 black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red계와 mauve를 대체적으로 싫어했다. 가을에는 남자는 mauve, red계, yellow계 순이고 여자는 yellow계, blue계, red계가 비슷하였으며, 겨울은 남녀 모두 blue계와 white의 착용협오도가 높았다.

(4) T셔츠의 색상

봄에는 yellow계, pastel계 순이고 red계와 white도 착용선호도가 높았으며, 여름은 남녀 모두 white, pastel계, blue계 순이다. 가을은 역시 beige계가 가장 높고 red계와 mauve의 선호도도 높은 편이었고, 겨울은 black, red계, beige계, gray 순이었다.

(5) 정장 색상

上衣는 봄에는 남자가 beige계, pastel계, yellow계 순이고 여자는 pastel계가 가장 높고, yellow계, red계 순이었다. 여름은 남자가 pastel계를 가장 선호하고, white, beige계 순이고, 여자는 white가 가장 높고 pastel계가 다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남녀 모두 가을은 beige계, gray, black 순이고 겨울은 black, gray, beige계 순이었다.

下衣는 봄에는 남자가 beige계, pastel계, black 순으로 높고 여자는 pastel계, yellow계, beige계, white로 약간 차이가 있으며, 여름에는 남자가 pastel계, beige계, white 순으로,

<표 6> 성별 착용협오색의 분포 명(%)

	봄		여름		가을		겨울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Red계	23 (16.20)	20 ( 9.62)	35 (24.65)	35 (16.83)	25 (17.61)	32 (15.38)	10 ( 7.04)	16 ( 7.69)
Yellow계	6 ( 4.23)	11 ( 5.29)	10 ( 7.04)	5 ( 2.40)	19 (13.38)	35 (16.83)	14 ( 9.86)	26 (12.50)
Green계	4 ( 2.82)	8 ( 3.85)	3 ( 2.11)	8 ( 3.85)	7 ( 4.93)	19 ( 9.13)	22 (15.49)	18 ( 8.65)
Blue계	14 ( 9.86)	7 ( 3.37)	6 ( 4.23)	12 ( 5.77)	14 ( 9.86)	33 (15.87)	26 (18.31)	33 (15.87)
Purple계	5 ( 3.52)	2 ( 0.96)	5 ( 3.52)	3 ( 1.44)	1 ( 0.70)	8 ( 3.85)	5 ( 3.52)	11 ( 5.29)
Pastel계	8 ( 5.63)	9 ( 4.32)	5 ( 3.52)	3 ( 1.44)	15 (10.56)	13 ( 6.25)	14 ( 9.86)	25 (12.02)
Beige계	8 ( 5.63)	18 ( 8.65)	8 ( 5.63)	22 (10.58)	3 ( 2.11)	2 ( 0.96)	2 ( 1.41)	5 ( 2.40)
Khaki	9 ( 6.34)	27 (12.98)	9 ( 6.34)	21 (10.10)	6 ( 4.23)	11 ( 5.29)	4 ( 2.82)	8 ( 3.85)
Mauve	16 (11.27)	23 (11.06)	15 (10.56)	38 (18.27)	28 (19.72)	30 (14.42)	11 ( 7.75)	25 (12.02)
White	1 ( 0.70)	1 ( 0.48)	2 ( 1.41)	2 ( 0.96)	8 ( 5.63)	12 ( 5.77)	27 (19.01)	32 (15.38)
Gray	12 ( 8.45)	23 (11.06)	7 ( 4.93)	13 ( 6.25)	4 ( 2.82)	8 ( 3.85)	4 ( 2.82)	5 ( 2.40)
Black	36 (25.35)	59 (28.37)	37 (26.06)	46 (22.12)	12 ( 8.45)	5 ( 2.40)	3 ( 2.11)	4 ( 1.92)
계	142 (100)	200 (100)	142 (100)	208 (100)	142 (100)	208 (100)	142 (100)	208 (100)

여자는 white, pastel계, blue계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을은 모두 beige계, black, gray 순이고 겨울은 black이 높고, beige계와 gray도 착용선호도가 높았다.

성별에 의한 색채선호에서, 관념 기호색과 관념 혐오색에서 남녀의 차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봄과 여름에는 서로 차이가 있고 가을과 겨울의 분포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 3) 교육정도별 색상선호

#### (1) 관념기호·혐오색

관념기호색을 보면 고졸은 pastel계, black, 전문대는 blue계, beige계, black, 대제이상은 red계, pastel계, blue계 순으로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 문선희<sup>22)</sup>의 연구에서는 고졸은 green계, brown계, red계, black 순이고 대졸은 brown계, yellow계, red계, orange계로 나타났다. 관념혐오색은 고졸·전문대는 khaki, gray, red계 순으로, 대제 이상은 mauve, khaki, red계 순으로 나타났다.

#### (2) 착용 기호색

3집단의 기호순위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봄에는 주로 pastel계, yellow계가 많고, 여름은 white가 가장 높고, blue계와 pastel계가 주로 기호되며, 가을은 beige계가 압도적으로 기호가 높고 겨울은 black, gray, beige계 순이다. 문선희<sup>22)</sup>는 고졸은 blue계, brown계, black, yellow green계, pink계로 나타났고 대졸은 brown계, blue계, red계, pink계, yellow green계로 나타났다.

#### (3) 착용 혐오색

봄에는 고졸은 blue계, black, 전문대는 black, 대제 이상은 black, mauve, red계, khaki 순으로 나타났고, 여름은 black, red계 순이며 가을에는 고졸은 mauve, yellow계, 전문대는 blue계, red계 순이며, 대제 이상은 red계, yellow계, mauve 순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은 white, blue계로 나타났다.

교육정도별로 살펴보았을 때 관념기호색과 착용혐오색의 봄과 가을에서만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다른 분포는 각 집단별로 거의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 4) 피부색별 색상선호

피부색은 ㉠ 흰 편, ㉡ 누르스름한 편, ㉢ 붉은 편, ㉣ 검은 편으로 나누었으며, 조사대상자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피부색별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각 집단간의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며 전체적인 분포경향과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다.

### 5) 체형별 색상선호

#### (1) 관념 기호·혐오색

관념기호색을 보면, 마른형은 pastel계를 가장 선호하고, 이어 red계, blue계, black을 선호하고, 표준형은 red계, pastel계, blue계 순이고, 비만형은 pastel계, black, green, beige계로 나타났다. 마른형과 표준형은 선호경향이 비슷했으나 비만형은 조금 차이가 있었다.

관념염오색은 마른형·표준형에서 대체로 khaki, mauve, red계의 염오도가 높았고, 비만형은 mauve, gray, red계, khaki의 염오도가 높았다.

## (2) 착용기호색

봄은 마른형과 표준형은 pastel계, yellow계 순이고, 비만형은 yellow계, pastel계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은 white와 blue계, pastel계, 가을은 beige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겨울은 black과 gray의 기호가 높은 편이었다. 김소형<sup>29)</sup>의 연구에서 각 체형 모두 의복색으로 무채색과 청색을 선호하나 뚱뚱한 체형일수록 마른 체형에 비해 고명도 색상을 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권미세<sup>30)</sup>의 연구에서 마른 체형의 여대생은 밝은 색상, 뚱뚱한 체형의 여대생은 어둡고 진한 색상을 선호하였으며, 서미아<sup>31)</sup>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남녀대학생,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마른 체형은 붉은 난색계 색상을, 뚱뚱한 체형은 어두운 난색계를 선호하였다. 정삼호<sup>32)</sup>의 연구에서는 성인여성의 뚱뚱한 체형은 한색을, 표준 체형은 난색을 좀 더 선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체형별로 살펴본 결과, 큰 차이는 없었으며 관념기호색과 관념염오색에서 마른형과 표준형은 동일한 순서를 보이고 비만형이 약간 차이를 보였다.

<표 7> 계절연상색의 분포

명(%)

	봄		여름		가을		겨울	
	N	(%)	N	(%)	N	(%)	N	(%)
Red계	28	( 8.00)	30	( 8.57)	34	( 9.71)	32	( 9.14)
Yellow계	206	(58.86)	10	( 2.86)	7	( 2.00)	4	( 1.14)
Green계	29	( 8.29)	44	(12.57)	12	( 3.43)	0	
Blue계	5	( 1.43)	139	(39.71)	11	( 3.14)	3	( 0.86)
Purple계	2	( 0.57)	31	( 8.86)	14	( 4.00)	13	( 3.71)
Pastel계	71	(20.27)	46	(13.14)	10	( 2.86)	15	( 4.29)
Beige계	5	( 1.43)	4	( 1.14)	226	(64.57)	27	( 7.71)
Khaki	0		0		24	( 6.86)	3	( 0.86)
Mauve	2	( 0.57)	0		4	( 1.14)	3	( 0.86)
White	2	( 0.57)	44	(12.57)	3	( 0.86)	88	(25.14)
Gray	0		1	( 0.29)	5	( 1.43)	68	(19.43)
Black	0		1	( 0.29)	0		94	(26.86)
계	350	(100.0)	350	(100.0)	350	(100.0)	350	(100.0)

### 3. 계절연상색과의 관계

각 계절에 따라 연상되는 색을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결과를 살펴보면 봄은 yellow 계가 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이 pastel계로 이 두 계열의 색상들이 전체의 거의 80%를 차지하였다. 여름은 blue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pastel계, green계와 white가 차지했다. 냉기가 도는 색상으로 바다를 연상하여 여름색으로 blue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을의 연상색으로는 단연 beige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red계, khaki 순이다. 가을에는 낙엽을 많이 연상하므로 beige계에 대한 연상이 높다. 겨울은 black, white, gray 순으로 무채색 계열이 전체의 약 72%를 차지하였다. 문순만<sup>23)</sup>, 오은경<sup>24)</sup>의 결과들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점은 Munsell 20색상표에는 없는 pastel계와 beige계의 색상에 대한 연상이 높았다.

### 4. 의복 선택시 색상에 대한 태도

다음은 의복을 선택할 때 20대 남녀의 색상에 대한 태도를 의복구입시 색상선택의 원인, 의복색상에 대한 관심도, 의류시장의 색상만족도, 의복에 있어서의 색상조화로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8>에 나타나 있다.

#### 1) 의복구입시 색상선택의 원인

의복을 구입할 때 색상을 선택하는 원인을 알아본 결과 “자신에게 어울린다”가 59.4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므로”가 29.14%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20대 남녀들은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인지하고 있으며, 의복색상 선택시 자신의 기호색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김소형<sup>25)</sup>의 연구에서는 “자신이 좋아하는 색이므로”가 45.00%, “자신에게 어울린다”가 30.69%인 것으로 볼 때 최근 남성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복 style과 색상들이 다양해지고 남성들 역시 자신의 의복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예전보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잘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의복 색상에 대한 관심도

의복 색상에 대한 관심을 알아보기 위해 연령과 성별에 따라서는 t-test를 실시하였고, 교육정도별로는 ANOVA와 Scheff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없었고, 성별에 따라서는 4문항중 3문항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래서 유행색에 대한 선호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으며, 의복색상에 대한 관심과 의복구입시 소유하는 의복 색상을 고려하는 점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다. 또한 교육정도별로 알아본 결과 유행색에 대한 선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대체이상 집단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아 나머지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의류시장의 색상 만족도

의류시장에서의 색상 만족도를 알아본 결과, 표에 나타난 것처럼 연령에서만 2문항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20대 초반보다 20대 후반이 의류시장의 색상에 더 만족하고 있으며 유명브랜드 제품과 소매제품의 색상 차이를 더 인정하고 있다.

<표 8> 의복색에 대한 관심도

			연령		성별		교육정도		
			초반	후반	남	여	고졸	전문대	대제이상
의복색상 관심도	유행의 민감도	M	2.77	2.69	2.64	2.77	2.82	2.89	2.64
		SD	0.92	0.82	0.90	0.84	0.91	0.87	0.84
		T	0.84		-1.42		(F)	2.68	
	유행색 선도호	M	1.89	1.95	2.02	1.86	2.11 <sup>a</sup>	2.11 <sup>a</sup>	1.82 <sup>b</sup>
		SD	0.76	0.68	0.74	0.69	0.93	0.77	0.60
		T	-0.84		2.14 <sup>*</sup>		(F)	7.15 <sup>***</sup>	
	의복색상의 관심도	M	3.46	3.36	3.29	3.48	3.39	3.42	3.40
		SD	0.83	0.84	0.84	0.83	0.91	0.75	0.84
		T	1.16		-2.12 <sup>*</sup>		(F)	0.02	
	의복구입시 소유 의복색상과의 고려	M	3.81	3.75	3.63	3.87	3.60	3.78	3.82
		SD	0.70	0.82	0.77	0.76	0.80	0.72	0.78
		T	0.71		-2.78 <sup>**</sup>		(F)	1.98	
국내 의류 시장 만족 도	국내 의류제품의 색상만족도	M	2.84	3.02	3.03	2.88	2.97	2.95	2.93
		SD	0.80	0.83	0.88	0.77	0.81	0.74	0.85
		T	-2.05 <sup>*</sup>		1.61		(F)	0.05	
	유명제품과 소매제품의 색상 차이	M	3.40	3.56	3.42	3.54	3.45	3.43	3.52
		SD	0.96	0.82	0.87	0.89	0.86	0.95	0.87
		T	-1.65 <sup>*</sup>		-1.28		(F)	0.30	
색 상 조 화	의복색 선택시 체형고려	M	3.55	3.67	3.41	3.76	3.52	3.71	3.62
		SD	0.98	0.90	0.91	0.93	0.95	0.84	0.96
		T	-1.15		-3.51 <sup>***</sup>		(F)	0.67	
	의복색 선택시 피부색 고려	M	3.26	3.39	3.14	3.47	3.47	3.35	3.30
		SD	0.94	0.94	0.92	0.94	0.88	0.89	0.97
		T	-1.29		-3.26 <sup>**</sup>		(F)	0.82	
	각종 소품구입 · 착용시 의복	M	3.59	3.62	3.37	3.77	3.31 <sup>a</sup>	3.63 <sup>ab</sup>	3.69 <sup>b</sup>
		SD	0.89	0.74	0.78	0.79	0.78	0.78	0.81
	색상과의 고려	T	-0.35		-4.79 <sup>***</sup>		(F)	5.54 <sup>**</sup>	

(\* : P<0.05 \*\* : P<0.01 \*\*\* : P<0.001)

<sup>ab</sup> : Scheff test 결과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들을 서로 다른 알파벳 문자로 표시하였다.

#### 4) 의복에 있어서의 색상조화

성별에서 모두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남자보다 여자가 의복색을 선택할 때 자신의 체형과 피부색을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말이나 구두, 모자, 스카프, 핸드백, 악세서리 등 각종 소품을 구입 또는 착용할 때에도 여자가 의복과의 색상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문항은 교육 정도에 있어서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Scheff test 결과 고졸집단과 대제 이상 집단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선의<sup>26)</sup>의 연구에서 여대생들이 각 문항마다 색상조화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김소형<sup>28)</sup>의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들이 의복배색에 대한 관심이 낮고, 소품과 옷과의 배색 여부에도 관심이 낮은 것으로 보아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20대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관념적인 기호·협오색과 착용 기호·협오색, 그리고 각 계절별로 청바지 위에 입을 T셔츠와 정장의 색상선호를 조사하여 비교하고, 또 개인적인 요인들—연령, 성별, 교육정도, 피부색, 체형—에 따른 색상선호를 알아보고, 부가적으로 의복 선택시 색상에 대한 태도로써 색상선택 원인, 의복 색상의 관심도, 의류시장의 색상만족도, 의복에 있어서의 색상조화 등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하여 연령, 성별, 교육 정도에 따라 비교,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20대는 관념적으로 pastel계, red계, blue계, black 순으로 난색계통을 더 선호하고, 협오색은 mauve, khaki, red계 순으로 어둡고 칙칙한 색을 싫어했다. 그리고 주된 착용기호색을 보면, 봄은 pastel계와 yellow계, 여름은 white와 blue계, pastel계, 가을은 beige계, 겨울은 black, gray, beige계로 나타났다. 착용협오색을 보면 봄과 여름은 black, red계, mauve, khaki, 가을은 mauve, red계, yellow계이고, 겨울은 blue계, white, yellow계, green계, pastel계 순으로 나타났다.
2. 20대 남녀의 의복종류에 따른 계절별 선호색에서 T셔츠의 색상은 봄은 yellow계, pastel계, white순이고, 여름은 white, pastel계, 가을은 beige계, red계, 겨울은 black, red계, beige계 순으로 나타났다.  
정장을 보면 봄에는 pastel계, beige계, yellow계 순이고, 여름에는 상의는 white, pastel계, 하의는 pastel계, white, blue계 순이었다. 가을에는 beige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겨울에는 black, gray, beige계 순으로 나타났다. 정장보다 T셔츠의 색상에서 원색을 선호했으며, 정장은 상의보다 하의를 더 짙은 색상으로 착용하고 있었다.
3. 개인적인 요인들 중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성별로써, 관념기호색은 남자는 blue계, beige계, black순이고, 여자는 pastel계, red계, blue계로 나타났으며, 관념협오색은 남자는 mauve, red계, gray순으로 나타났고, 여자는 khaki, mauve, red계, green계, blue계 순으로 나타났다.
4. 의복의 색상선택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계절적인 영향과 자신의 기호색이다. 즉 그 계절이 상징하고 연상케 하는 색상과 특별히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에게 어울린

다고 생각하는 색상위주로 의복을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20대 남자들의 유행색 선호도가 여자보다도 더 높으며, 대학재학 이상의 집단이 고졸과 전문대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의복색상에 대한 관심과 의복구입시 소유의복, 자신의 체형과 피부색과의 고려는 여자가 더 높으며, 각종 소품을 구입, 착용 시에도 여자가 의복과의 색상을 더 고려하고, 고졸집단과 대학 재학 이상의 집단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20대는 기본적인 원색보다는 pastel계나 beige계와 같은 중간색과 무채색에 대한 선호가 높았으며 이는 최근의 유행경향과 동일하고, 유행과 의복색상에 대한 관심이 높으므로 의류업계에서는 무엇보다도 유행색의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최근 의복에 가장 유행되고 기호되는 색상들을 조사연구하므로서 의복 색상연구에 기준이 될 수 있는 Color list를 제작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색상의 기호경향이 연령, 지역, 학력, 체격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조사대상을 대구시내로 한정하였다는 점과 조사대상으로 많은 인원수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 조사대상자들이 대학 재학 이상의 고학력층에 반 이상 집중되어 분포가 고르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가 우리나라에서 표준화된 것이 아니므로 확대해석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후속연구를 위한 제안점으로는 착용색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폭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비교연구도 바람직하며 좀 더 다양한 색상들을 대상으로 한 실제적인 의복색상 연구도 요구되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유송옥, 복식의장학, 수학사, 11, 1975.
2. B. G. Chambers, *Color and design*, NY:Prentice Hall, 109, 1951.
3. 김순애, 아동복의 색채와 기호색에 대한 비교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1987.
4. 이연숙, 이의준, 색지와 색가구를 통해본 취학전 아동의 색채선호 경향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138, 1985.
5. Marilyn J. Horn, Lois M. Gurel, 제2의 피부(3판), 이화연, 민동원, 손미영(역), 도서출판 까치, 507, 1991.
6. M. Kefgen., P. Touchie-Specht, *Individuality in clothing selection and personal appearance* (4rd ed.), NY:Macmillan, 1986.
7. 上田武人, 色彩調節, 東京: 共文出版株式會社, 52, 1972.
8. 권은숙, 색으로 승부하는 21세기, 웅진출판 주식회사, 17-19, 1995.
9. 윤일주, 색채학 입문, 서울:민음사, 123, 1971.
10. 小林重順, チサ仁のための色彩心理, 東京: 誠信書房, 92-95, 1965.

11. 野村順一, 『색의 비밀』, (김미지자 역), 도서출판 보고사, 75, 1994.
12. 이호정, 복식디자인(재판), 교학연구사, 100-102, 1987.
13. 김인수, 색채가 의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4-15, 1985.
14. 현선아, 여성 패션 코오디네이션, 도서출판 등지, 19, 1994.
15. Marian L. Davis, 복식의 시각 디자인, 이화연, 손미영, 노희숙(역), 경춘사, 193, 1990.
16. Eastwood Atwater, 적응심리 [Psychology of adjustment -personal growth in a changing world] 김인자(역), 정민사, 354-355, 1984.
17. 임경복, 임숙자, 조진숙, 세대별 가치관과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9(4), 617, 1995.
18. Karl C. Garrison, *Psychology of Adolescence*, NJ:Prentice Hall Inc., 105, 1965.
19. 문순만, 색상의 이해 및 기호도에 관한 연구-대구시내 여고생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9, 1982.
20. 김소형, 남자대학생의 의복색 기호도에 관한 고찰-서울시내 남자 대학생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1986.
21. 이금숙, 청년기의 의복색 기호와 색채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37, 1991.
22. 김영철, 색채응용 및 기호심리에 대한 조사 연구-대구지방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46, 1979.
23. 문순만, 29-33.
24. 오은경, 한국인의 색채의미와 이미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5-72, 1990.
25. 문선희, 한국 여성의 의복 색채 기호에 관한 고찰,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7-43, 1980.
26. 홍선의, 여대생들의 의복색상에 대한 견해와 의식에 관한 연구-서울지구 여대생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7. 정삼호, 성인여성의 의복에 대한 색채 및 배색선호에 관한 연구, 가정문화논총(중앙대학교 가정문화연구소), 창간호, 1987.
28. 조혜숙, 배색의 효과와 의복색과의 관계, 살림갈(성신여자대학교 가정대학), 12, 1986.
29. 김소형, 19-43, 1986.
30. 권미세, 한국 여대생의 기호색과 착용기호색에 관한 연구, 논문집(덕성여자대학교) 5·6, 1977.
31. 서미아, 의복의 무늬 기호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한국생활과학연구소, 3(3), 1985.
32. 정삼호, 성인여성의 체형과 연령에 따른 의복디자인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